

메리츠화재·순한방병원 포비스 “우리가 무등기 챔피언”



‘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에서 우승한 메리츠화재보험 선수들이 29일 오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우해동 감독을 반짝 들어올리고 있다.



29일 오후 열린 ‘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2연패를 차지한 순한방병원 포비스 선수들이 김경노 감독을 행거레 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순한방병원 포비스와 메리츠화재보험이 13번째 무등기 정상에 올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한 제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전이 29일 영광 대마산단야구장에서 열렸다.

광일리그 결승에서는 메리츠화재보험이 사크스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8-7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무등리그 결승에서는 순한방병원 포비스가 에어패스 파죽지세를 18-4로 꺾고,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광일리그 결승전에서는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다. 1회부터 2점씩 주고 받은 두 팀은 2회도 쉬어가지 않았다.

2회초 연속 볼넷으로 맞은 추가 득점 기회에서 조성현의 타구가 좌중간을 가르면서 2타점 3루타가 되는 등 메리츠화재가 5-2를 만들었다. 사크스도 김호진의 내야안타로 시작한 2회말 2점을 보태며 1점 차로 추격을 했다.

3회초 장영웅의 3루타로 6-4를 만든 메리츠화재가 3회말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투수 조성주가 임용신에게 안타는 하나 내줬지만 탈삼진 3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4회말 사크스가 박근표의 3루타와 김호진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탤까 했지만 메리츠화재가 5회초 1점을 뽑으면서 8-5로 달아났다.

사크스가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다. 5회말 상대의 잇단 폭투로 8-6까지 좁힌 사크스, 시간 제한으로 6회말 마지막 공격이 진행됐다.

광일리그 - 메리츠화재보험, 사크스와 접전 끝에 8-7 승리 무등리그 - 순한방병원 포비스 화끈한 타격으로 2연패 성공

사크스가 사사구 3개로 2사 만루를 만들어냈다. 박정재의 1루 땅볼 때 타자주자가 태그를 피하면서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1점의 피말리는 승부,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메리츠화재의 장영웅이 마지막 타구를 직접 잡아 1루에 송구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무등리그 결승에서는 포비스가 집중력 싸움에서 앞서면서 18-4 대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1회초 파죽지세가 허경훈의 1타점 2루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포비스도 1회말 김현창의 적시타로 1-1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2회말 볼넷과 폭투 등이 나오는 등 선발 이재정의 실점이 올라가면서 1-2가 됐다.

2회말 몸풀린 포비스의 방망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파죽지세 선발 이세준이 몸에 맞는 볼과 사사구로 흔들리면서 무사 1·2루, 최한으로 투수가 교체됐다. 2루수 플라이로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지만 포비스가 볼넷을 얻어내 1사 만루를 만들

었다. 주정민의 적시타로 3-2 역전에 성공한 포비스는 폭투와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묶어 5-2로 달아났다.

3회초 신문철과 이세준의 연속 안타로 파죽지세가 무사 1·2루 기회를 잡았다. 선취점 주인공 허경훈이 다시 한번 우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파죽지세가 2점을 더했다.

하지만 포비스의 방망이가 매서웠다. 3회말 김장집의 내야안타와 김석민의 몸에 맞는 볼로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든 포비스는 양하성의 중전 적시타 등으로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10-4까지 점수를 벌였다.

4회말에는 김현창의 스리런까지 터져나오면서 포피스가 일찍 승부의 추를 기울이면서 무등리그 2연패를 확정했다.

포비스의 홍정환과 메리츠화재의 최홍준이 각각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MVP로 선정됐다. 심판상은 이성진 심판위원에게 돌아갔다.

무등기대회를 총괄한 이영현 사무국장은 “부상 없이 대회가 잘 마무리됐다. 영광에서 활동하는 사크스가 이번 대회 결승까지 올

라운 점도 의미 있었다”며 “무등기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다. 6·7월부터 무등기 대회 요강을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온다.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이자 다른 리그의 팀들과 대결을 하면서 실력을 겨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대회 참가를 못해 아쉬워하는 팀들도 많다. 더 많은 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결승 전적

◆1경기 (광일리그)

메리츠화재 231020 - 8

사크스 220111 - 7

▲최우수 감독 : 우해동 ▲최우수 선수 : 최홍준 ▲우수선수 :

김병국

◆2경기 (무등리그)

에어패스 파죽지세 112000 - 4

순한방병원 포비스 145503 - 18

▲최우수 감독 : 김경노 ▲최우수 선수 : 홍정환 ▲우수선수 :

김종관

우승팀 감독 인터뷰

광일리그 - 메리츠화재 우해동

“사력 다해 야구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5년 만의 정상 탈환, 꿈만 같습니다. 내년에는 무등리그 우승을 노리겠습니다.”

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 정상에 우뚝 선 메리츠화재보험 우해동(52) 감독은 초접전 끝에 거머쥐는 승리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보험은 지난 2018년 광일리그에서 우승한 뒤 5년 만에 트로피를 되찾았다. 5년 전과 같은 선수진이 만들 우승이라 더 값진다는 게 우 감독의 설명이다.

우 감독은 특유의 재치와 포용력을 발휘하며 경기마다 극적인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결승전을 치르는 이날 새벽에도 선수들에게 일일이 기상 전화를 넣으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대회 출전할 때만 해도 1회전에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력을 다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결승전은 잊지 못할 경기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 스카이하구단으로 시작할 때부터 야구단을 지켜온 우 감독은 승리의 공을 후배들에게 돌렸다.

“구성원 모두 생업으로 바빠 출전 기회를 자주 잡지는 못했지만, 단합이 잘 되고 서로 믿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야구단을 후원해준 메리츠화재보험과 사회인 야구 기반 확충에 힘쓰는 광주일보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등리그 - 순한방병원 포비스 김경노

“즐기는 야구로 성과 이뤄내 보람 커요”



“승패와 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즐거운 야구’로 성과를 거둬 더 보람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2연패를 한 순한방병원 포비스 김경노(50) 감독은 자신이 추구하는 ‘즐기는 야구’를 강조했다.

포플레이 포비스와 썬프렌즈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순한방병원 포비스는 결성 첫해부터 일을 냈다. 포비스의 명성을 다시 한번 알린 대회였다.

김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1차전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25년 전 사회인 야구에 첫발을 내디디고 7년 동안 사령탑으로 활동해왔지만, 첫 경기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저와 선수들에게는 1차전이 가장 힘든 경기였습니다. 힘든 승부를 마치고 자신감이 점차 붙었고, 우승을 예감하게 됐죠.”

김 감독은 사회인 야구단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재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매주 두 차례 하는 훈련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인 야구가 예전의 인기를 되찾을 거라 믿습니다. 팀원 모두와 훈련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손영생 코치에게 우승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포비스는 앞으로도 각종 전국 단위 대회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광주 사회인 야구의 매서운 맛을 보여줄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우수 선수 인터뷰

광일리그 - 메리츠화재 최홍준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야구 하겠다”



“무등기 두 번째 우승, 쉽지 않은 경기였던 만큼 더 기쁩니다.”

메리츠화재의 결승전 선발로 나선 최홍준(38)이 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수로 경기를 시작한 그는 앞선 준결승전에서는 타자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수훈감이 됐다.

최홍준은 “무등기에서 두 번째 우승이다. 마지막까지 경기가 힘들었는데, 긴장도 많이 됐고 그만큼 더 우승한 게 기쁘다”며 “무등기 첫 개인상 수상이기도 하다. 결승전 활약은 부족했지만 준결승전 동점 적시타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학교 1학년까지 야구를 했던 그에게 그라운드는 특별한 곳이다.

최홍준은 “어렸을 때 야구를 했었고, 고 3때 친구를 통해 사회인 야구를 알게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있다”며 “야구의 매력은 중독성이다. 야구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운동장 나오면 재미있다. 하다보면 흥이 올라가 야구를 하게 된다”고 야구의 중독적인 매력을 이야기했다.

최홍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최홍준은 “아파보니까 건강하게 야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관리 잘하면서 더 열심히 플레이를 하겠다”고 ‘건강한 야구’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리그 - 순한방병원 포비스 홍정환

“잊지 못할 추억 안고 군 입대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군대 갑니다.”

1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우승을 이끈 순한방병원 포비스의 포수 홍정환(24)이 대회 MVP에 선정됐다.

홍정환은 “안방을 지키면서 우승에 기여했다. 오는 11월 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각별한 우승과 수상이 됐다.”

홍정환은 “감독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잘 됐다. 내 역할을 했을 뿐이다. 수비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MVP가 된 것 같다”며 “선발 이재정 형이 정말 공이 좋은 투수인데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다들 수비에서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포비스 유니폼을 입고 본격적으로 사회인 야구를 시작한 그는 “젊은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야구 예찬론을 폈다. 홍정환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다. 아기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 보다 공을 잘 던졌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었고 팀에 들어왔다. 야구가 자꾸 생각난다. 오늘 MVP 받은 것도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웃었다.

이어 “무등기는 잘하는 팀끼리 붙는 만큼 기다리는 대회다. 실력을 확인하고, 키울 수 있는 대회다. 무등기 2연패까지 이뤘다. 포비스가 이 지역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도 휴가내서 대회에 꼭 참가하겠다”고 ‘3연패’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